

◇결재 정선의 '비로봉도'. 비위와 하늘이 맞닿는 능선일대가 비로봉이다.

일민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그림전 장엄한 금강산 '진경산수'

배색을 들이지 않고도 불보살이 머무는 금강정도, 금강산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따라 마련된다. 일민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각각 금강산에 관한 대규모 전시를 연다. 일민미술관은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용유금강-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년전'을 연다. '용유금강...' 전에는 결재 정선(1676~1759)부터 소경 변관식(1899~1976)에 이르기까지 300년에 걸쳐 그려진 금강산 그림과 민정기·김호득·윤동천씨 등 현대 작가 15명이 옛 작가들이 금강산을 그린 같은 지점에서 직접 사생하고 그린 것과 금강산과 관련된 기행시문·사진자료 등도 전시된다.

청안스님 수맥차단 음반 출시

도래미 레코드사에서 "귀신 쫓는 스님"으로 알려진 퇴마승 청안스님의 수맥차단 음반인 "Nags Tears(용왕의 눈물)"가 출시됐다. 이 음반은 연주부분과 랩형식의 불경음악부분으로 나뉘었다. 연주부분은 청안스님과 전문 연주인들이 밴드를 이뤄 드럼 징 종 등의 쇠소리를 곁들인 연주를 하고, 불경부분은 힙합음악의 선두주자인 Drunken Tiger의 타이거 J.K가 열음을 곁들인 랩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도래미레코드사측은 "이 앨범은 불음을 높임으로써 장애물을 음파로 투과하기 때문에 멀리있는 곳까지 집 전체의 수맥이 차단되며, 음악에서 좋은 기가 발생하여 기수련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일본내 '한국범종' 60여구

재일동포 강건영씨 '범종을 찾아서' 출간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나라 종은 얼마나 되며 어떤 종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일본의 신사나 수장고에 묻혀있던 한국의 종은 60여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45구를 발굴·소개한 <범종을 찾아서-신라·고려·조선의 종>이 일본에서 출간돼 주목된다. 범종에 얽혀있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명문·크기·소재지 등을 밝힌 <범종을 찾아서>은 9년간 일본 전역에서 한국의 범종을 조사해온 재일동포 강건영(60·관서지구 한국인의사회장)씨가 발간한 것. 예구·왜병의 약탈, 일본상인의 수입 등 갖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범종 가운데 강씨가 확인한 것은 신라종 5개, 고려종 36구, 조선종 4구 등 총 45구. 그러나 일본인 소장가가 비장하고 있는 범종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60여구에 이른다. 강씨는 일간신문 때 때로로 불잡혀간 유학자 강항(姜沆)의 후손. 강씨는 강항이 머물렀던 사찰 출세키지(出石寺)의 고려 범

신사·수장고 묻혀있던 한국종 45구 명문등 소개

한다. 또 이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때 미군의 합포사격을 받아 용두만을 남긴 채 파괴된 오키나와 파상공 종의 원형을 담고 있는 사진도 소개하고 있다. 파상공 종은 고려 전기인 956년에 제작돼 일본으로 넘어간 종으로, 당시 '환상의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비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종 대부분은 19세기 초까지도 고대 중국의 요·동진 등의 종으로 잘못 알려져왔다. 이후 양식있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국보 또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테현립대학 니시자와 준이치후장은 <범종을 찾아서>에 대해 "한반도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범종을 일본에 알리는데 앞장선 전문서"라고 말했다. 강씨는 일간신문 때 때로로 불잡혀간 유학자 강항(姜沆)의 후손. 강씨는 강항이 머물렀던 사찰 출세키지(出石寺)의 고려 범



종에 매료되어 9년간 일본의 복단 하치노헤·모리오카 시에서 남단의 쓰시마·오키나와 섬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누비며 한국의 범종을 추적했다. 강건영씨는 "일본인 소장가들이 비장하고 있는 10여구의 범종을 조사하는 대로 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 책을 한국어로도 출판할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gobaouu@buddhapia.com)



중요무형문화재연합회 장주원 초대회장

"전통문화 보존 민족얼 살릴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한민족의 얼을 지키는 일입니다. 연합회는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발족한 중요무형문화재연합회(이하 연합회) 초대 회장 장주원(64·경기대 석좌교수) 씨는 "무형문화재 지정제도가 시행된지 35년이 지난 지금 지정보유자는 175명에 이르지만, 각 보유자들이 현행 제도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기능이 단절되고 있다"며 "연합회는 세미나와 전수회 등을 마련해 이같은 현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손에게도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폐쇄적인 전수에서 탈피,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통문화를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매달 한차례 전통문화 세미나와 기능보유자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회에 참여한 주요 기능보유자는 판소리 명창 조상현·안숙선·정광수씨, 가야금 이영수씨, 안성유기 기능보유자 김근수씨 등 100여명.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육공예 보유자인 장희장은 "올해안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화제의 전시

지현명씨 '불보살조각전' 7월7-12일 대구 신미화랑

축으로 불보살을 빛낸 지현명씨의 조각전이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신미화랑에서 열린다. '불동', '명경', '일면불 월면불' 등 조소 10여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씨는 수행승과 노인 그리고 아이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선경의 경계를 보여준다. 또 '불일(佛日)' 시리즈 5점에서는 아이를 안은 여인의 모습으로 자비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재삼 생각하게 한다. (053)424-1442



◇지현명씨의 '불동'.

김홍진씨 '금강삼매전' 7월8일까지 남양주아트센터

중점되는 동심원을 연상케 하는 작품세계로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달래온 김홍진씨가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아트센터에서 '금강삼매' 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금강삼매' 시리즈 20여점을 선보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갖가지 사람·사물과 부딪치며 겪는 갈등과 충격을 비유할 수 있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씨는 91년 'MBC 미술대전' 93년 일본 '신진' 등을 연 증진화가 다. (0346)592-066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 2001년 6월 청주서 연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가 오는 2001년 청주에서 열린다. 청주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4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01년 6월 개최 예정인 5회 회의를 청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는 서적, 그림 등 세계 각국 문화재의 가치를 심사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01년에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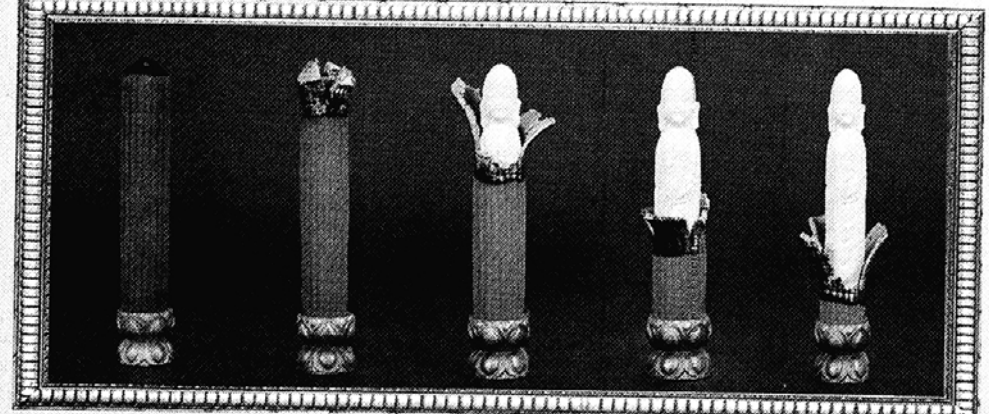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찬불가 전문 록 그룹사운드 '아미타'가 7월4일 계몽산 갑사 '산중음악회'를 비롯해 11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 위문공연도 갖는다.

또 26일에는 구인사 학생수련회 초청 콘서트도 개최한다. 드럼과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심어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아미타'는 98년 6월 창단 이후 교도소, 군부대, 봉축법회 등에서 음성공양을 통한 찬불가 포교에 힘써왔다. 한편 '아미타'는 9월에 자작곡을 중심으로한 기존의 찬불가를 편곡해 음반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전통문화학교 첫 신입생 모집 문화재관리학과·조경학과 20명씩

국립 4년제 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내년 3월 개교와 함께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는 전통조경학과 20명과 문화재관리학과 20명. '전통조경학과'는 공원 사찰 서원 사적 공원 등의 내외 공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며, '문화재관리학과'는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조교·보조자 등은 생장기록부 만점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042)481-4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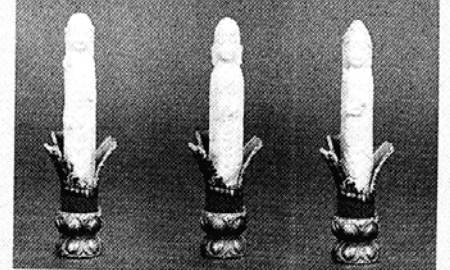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색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정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범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범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결모습을 중시하지 않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제조원: 金城通商

Tel: (051) 324-3731 Fax: (051) 324-3733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권